

지금 이 순간 내 앞의 가장 좋은 나와 만나세요.
산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보니까 산이 있듯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보니까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획득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인공신장실은 2022년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인증평가에서 『우수인공신장실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는 혈액 투석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본원은 2009년부터 연속으로 우수인공신장실로 선정되어 국제적 수준의 표준 치료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평가는 혈액투석 전문 평가위원들이 서류, 현지실사, 진료과정 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엄격한 심사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진의 전문성, 안전한 환경, 응급과 재난 대비 사항, 표준화된 혈액투석 과정, 운영의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형외과 임군일교수, 세계정형외과연구학회연합 학술회주제

정형외과 임군일 교수는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개최된 세계정형외과연구학회연합(International Combined Orthopedic Research Societies) 학회장으로 학술회를 주재하였다. 세계정형외과연구학회연합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2개 정형외과 분야 연구학회들의 연합체로 3년에 한번 정기학술회를 개최하며, 각 지역 학회에서 추천한 이 분야 우수 연구자들에 펠로우 타이틀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에서 임군일 학회장은 전 세계에서 선발된 약 30명의 학자들에게 펠로우 증서를 수여했다.

임군일 교수는 3년간 이 학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세계정형외과 연구학회연합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개최된 학술회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신경과 장수임 전공의, 우수포스터상 수상

신경과 장수임 전공의가 8월 20일 대한신경면역학회 하계학술회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는 신경과 김남희 교수 지도 하에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군’과 ‘다발성 경화증 환자군’에서 망막 동맥과 정맥의 혈관 직경 측정을 통해 두 질환의 감별을 위한 바이오마커(각종 난치병을 진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로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시신경 척수염범주질환 환자군에서 더 심각한 망막 세동맥 손상이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수상은 망막 동맥 및 정맥 직경 측정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및 다발성 경화증의 감별 및 발병기전에 대한 바이오마커로 활용가능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2022년 임금협상 조인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9월 5일 병원 4층 제2회의실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7월 4일 노사 상견례 이후 7차 교섭 끝에 8월 17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투표 인원 대비 76.8% 찬성률로 가결됐다.

채석래 의료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함께 원만한 합의를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신뢰하고 협력하여 동국대학교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13회 희망걷기대회 의료지원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3일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주최한 제13회 희망걷기대회에 의료지원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행사는 약 2,000여 명이 참여하여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생명사랑 환경사랑’의 주제로 열렸다. 특히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의료지원단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태권도 공연팀과 참가자 등 약 30여 명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등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는데 힘을 보탰다.



정심행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추석 한가위 돌봄행사 시행

정심행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9월 8일 호스피스병동에서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추석 돌봄 행사를 시행했다.

민족대명절인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하는 환자, 보호자를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점심공양 도시락 및 송편 나눔’과 ‘꽁 없는 복주머니 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돌봄 행사는 입원 생활에서 발생하는 답답함,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게 기획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보호자는 “비록 고향에는 못 갔지만 추석 명절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